e-Journal *Homo Migrans* Vol.9 (Dec. 2013): 24-38

워크샵

〈영광의 날들(Indigène, 2007)〉에 나타난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의 정체성: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에서 정체성 만들기

신 동 규

I. 머리말

2006년 프랑스에서는 한편의 영화와 함께 식민지 시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중적인 청원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1959년 알제리 독립을 계기로 권리를 박탈당한 아프리카 출신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었다.

> 공화국 대통령 귀하
> 1명의 프랑스인 "상이용사"당 3명의 세네갈 상이용사와 11명의 모로코 상이용사.... 1명의 프랑스인 "연금수혜 참전용사"당 2.5명의 세네갈 참전용사와 7.5명의 모로코 참전용사.... "90일간 전투부대"에 배치된 1명의 프랑스인당 5.2명의 말리인, 7.3명의 알제리인 그리고 26명의 캄보디아인...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프랑스 제국에 속했던 25개국 출신 "원주민" 참전용사들의 현재 상황이며, 우리 공화국의 가장 큰 추문 중의 하나이다. 이 호소는 단지 식민주의적 계산을 끝내고 공화주의적 계산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전투 중 평등했던 이들에 대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1]

이 호소문은 영화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식민지적 관행을 청산하고 공화주의적 평등주의의 확립을 강조하는 이 호소문은 이 영화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을 위한 정치적 요구를 담은 문화 매체의

1) Appel pour l'Egalité des droits entre les anciens combattants français et coloniaux.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 영화는 바로 2006년 9월 27일 프랑스에서 개봉한 라시드 부샤렙(Racide Bouchareb) 감독의 영화 〈Indigènes〉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제목인 〈영광의 날들(Days of Glory)〉로 알려졌다.

프랑스어 원제 〈Indigènes〉은 프랑스 제국(Empire française)의 식민지 출신 군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원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6년 칸느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프랑스 군대 내의 이방인들을 연기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주연 배우들의 열연이 보여주는 예술성을 넘어서 파리 태생의 알제리계인 부샤렙 감독이 프랑스 사회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종전 60여년 후 거의 잊힌 '원주민(Indigènes)'이라고 불렸던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일종의 기억하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사렙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프랑스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매체의 역할을 했다. 특히 2005년 방리유의 사태가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고발했다면, 이 영화는 이 불평등이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I. 전쟁에 대한 또 하나의 기억/기념 방식 : 『영광의 날들』과 이방인들

1944년 8월 25일 파리의 해방은 동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결과물로 인식되곤 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파리 해방의 길을 열었다는 논리가 일반화된 이유는 바로 이 작전에 참여했던 연합군이 파리 서쪽의 브르타뉴 지방과 프랑스 북서 해안지방을 해방시켰으며, 특히 미 보병 4사단과 필립 르클렉 드 오뜨끌로끄(Philippe Leclrec de Hauteclocque) 장군 휘하의 프랑스 제2기갑사단이 상륙작전 이후 파리로 진격하면서 수도 탈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영광'의 노르망디 상륙작전-파리수복-독일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도식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도식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게다

가 1962년 존 웨인(John Wayne), 헨리 폰다(Henry Fonda),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 등이 주연한 〈지상 최대의 작전(The longest day)〉이나 1999년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가져다준 〈라이언 일병구하기(Saving Private Ryan)〉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독항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는 기념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장군의 1944년 8월 25일 파리 시청 연설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정치적 대응이었을까?

> 파리! 능욕당한 파리! 파괴된 파리! 학대받은 파리! 그러나 해방된 파리! 스스로 해방된 [파리], 프랑스 군대의 협력과 프랑스 전체의 협력과 지지와 함께, 싸우고 있는 프랑스, 단 하나의 프랑스, 진정한 프랑스, 영원한 프랑스의 협력과 지지속에서 민중에 의해 해방된 [파리]![2)]

'프랑스에 의해 해방된 파리'를 강조하는 드골의 연설문은 아마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골은 이 연설문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보다는 1944년 8월 15일부터 시작된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역할을 강조한다.

> 승리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의 선봉대는 포화속의 파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의 위대한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남부 지방(Midi)에 상륙했으며 빠르게 발레 뒤 론(Vallée du Rhône)까지 올라갔습니다.[3)]

드골은 프로방스 상륙작전 이후 지방의 주요도시가 해방된 시점인 1944

2) Discours de Charles de Gaulle, 25 août 1944.

3) *Ibid.*

년 9월 12일이 되어서야 연합군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치하했다. 샤이오 궁에서 행한 연설에서 드골은 첫 번째로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까지 진출했던 독일군을 '혹독한 전투'에서 소탕한 소련, 두 번째로 '유럽을 구원해준' 미국, 세 번째로 나치에 저항한 '용감한 국가들(vaillantes nations)'라고 칭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연합국에게 감사를 표했다.[4]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렇다면 8월 25일 연설문에 언급된 프로방스 상륙작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은 8월 7일 서부 해안 도시인 브레스트에 도착했으며, 8일에는 파리로 향하는 길목인 르망을 독일군으로부터 되찾았다. 그러나 파리가 프랑스의 북쪽 지역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전 국토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남쪽에서의 군사작전이 필수적이었다. 이것은 8월 15일 프로방스 상륙작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프랑스 남부로부터 북진하는 연합군은 8월 22일 그르노블, 8월 23일 툴롱, 8월 28일 마르세이유와 니스, 9월 3일 리옹, 9월 11일 디종 등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독일군을 축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보르도를 위시한 서남부 지역의 독일군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주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비해 프로방스 상륙작전에서 프랑스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만 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프로방스 상륙작전은 프랑스군과 미군이 주축이 되었으며, 특히 미군의 두 배에 이르는 약 260,000명의 병력을 투입한 프랑스군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프랑스 남부지역에 진출한 프랑스 군대의 90%가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 이중 48%가 식민지에 정착한 유럽계 백인이었으며 나머지는 소위 '원주민'으로 분류되는 식민지 출신이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프랑스군의 일원이었다. 드골은 1944년 6월 6일 런던에서 라디오를 통해 프랑스에 발표한 연설문에서 인종과 출신에 상관없이 단일한 목표를 향한 프랑스인의 '의지(volonté)'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Discours de Charles de Gaulle, 12 septembre 1944.

> 프랑스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nation)와 제국(empire)에 단지 하나의 같은 의지만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같은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5)]

그러나 대중적인 동원과 군대의 규율 아래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통합의 기술이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식민지 출신의 군인들은 백인 군인들과 뒤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들은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는 배제되었다. 8월 25일 파리에 입성하는 연합군의 행진에서 식민지 출신 유색인 군인들의 – 특히 흑인– 자리는 없었다. 드골은 프랑스 군인들이 파리 탈환 작전을 주도하기를 원했고, 영국군과 미국군의 지휘부는 백인으로만 편제된 부대가 파리에 입성하는 것을 전제로 드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미국은 전선에서 흑백 인종분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 주둔한 기갑사단에는 세네갈 등의 식민지 출신의 흑인 병사가 40% 가량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편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연합군은 우선 흑인 병사를 백인 병사로 대체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백인처럼 보이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출신의 병사들로 대체하는 타협안을 승인했다. 이렇게 프랑스는 파리를 스스로 해방시켰고, 미국과 영국은 백인들의 만든 승리라는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부터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게 항복 선언을 할 때 까지 17,000여명의 세네갈 병사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박탈당했다.

부사렙의 〈영광의 날들〉은 바로 이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알자스 지방까지 진격하는 프랑스 군대의 북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1943년 알제리의 시골마을에서 "독일 점령으로부터 프랑스를 해방시키자. 프랑스 깃발을 우리의 피로 물들이자!"라고 선동하는 노인을 따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원입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같은 해 모로코에서 모집된 북아프리카인 부대와 알제리 동북부의 세티프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1944년 이탈리아의 전선에서 만나게 된다. 이들의 첫 번째 전투는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지며, 승리에 도취한 이들은

5) Discours radiodiffusé de Charles de Gaulle, 6 juin 1944.

군함을 타고 프랑스로 이동하면서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부른다. 1944년 8월 프로방스에 도착 한 후 프랑스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아프리카 출신의 군인들은 10월에 발레 뒤 론 지역에 이르고, 11월에는 로렌지방의 보쥬(Vosge)도에 도착해 영화 속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개는 드골이 1944년 8월 15일 연설에서 강조한 프로방스 상륙작전과 일치한다.

부사렙이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이 시기[제2차세계대전]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1940년에서 1944년 사이 프랑스를 위해 싸운 60만 명의 병사의 존재, 아프리카인 부대의 존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6] 고 단언하듯, 그는 신화화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야기를 거부하면서 '보잘 것 없는' 새로운 영웅을 통해 잊힌 이야기를 현재화했다. 1944년 드골이 프랑스 주도의 파리 해방을 위해 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을 배제하는 한편 연합군 내에서 프랑스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보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강조했다면, 60여년 후 부샤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이어지는 백인들의 승리 이야기가 아닌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군인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끌어내고 있다. 드골은 제국(empire)에 속한 식민지인들의 정체성을 애국심에 기반을 둔 민족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한 선동을 하면서 '배제된 자' 들이 원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차이'와 '다름'을 은폐시켰으며, 이 '배제된 자' 들에게 끊임없이 애국심을 강요하면서 국가로 포섭했다. 반면에 부샤렙은 〈영광의 날들〉 을 통해 북아프리카인 들에게 있어서 프랑스라는 조국이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프로방스 상륙작전을 통해 부샤렙은 '배제된 자' 들의 실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로 대표되는 미국식 역사기억/기념 방식에 도전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1944년 드골이 의도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의 언어에서 제외시켰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드골은 실제로 배제된 자들을 국가 속에 통합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선동구호를 이용하였다면 부샤렙은 그 허구성을 드러냈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식민지 출신 군인들의 정체성

6) R. Bouchareb, interview, TF1, 27 septembre 2006.

조윤경은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에서 '원주민'이라고 불리우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정치적 권리 박탈을 아감벤이 말하는 '헐벗은 삶(La vie nue, nuda vital)'[7]을 통해 설명한다. 즉 프랑스인들은 그들이 "적과 싸울때에만 그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치적 죽음을 선고받은, 즉 생물학적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영화의 플롯 분석을 통한 조윤경의 주장은 프랑스와 그 식민지 출신 병사들과의 갈등을 잘 설명한다. 게다가 '백인들만의 승리'로 기념되기를 원했던 1944년 8월 25일 파리 해방의 상황을 통해 이 논리를 백인지배 구조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권리를 빼앗은 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8]

그러나 한편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프랑스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프랑스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군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훈육 과정에서 볼 수 있다.[9] '배제된 상태'에 놓인 식민지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하는 모습은 도덕체계(ordre moral)에서 타자를 조종하면서(conduire quelqu'un) 국가권력이 어떻게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통제하고 체제를 - 영화의 내용상 식민지/피식민지 지배구조- 강제하는지 보여주며[10], 개인들은 그 방식에 따라 스스로의 어떻게 행동을 규율화하고, 어떻게 이러한 행위들을 스스로 정당화 하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푸코의 통치성(gouvernmentalité)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영광의 날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성 형성은 합리적 국가이성이 만들어낸 물적토대와 사회적 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의구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내재되어있는 식민지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치

7) 조윤경의 번역을 따름. 이 아감벤의 개념은 '벌거벗은 삶'으로 번역 되기도 함.

8) 조윤경, 「알제리를 다룬 영화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추방된 사람들>(2004)과 <영광의 날들>(2006)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집 (2010), 697.

9)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Editions Gallimard, 1975), 222.

10) Michel Foucault, *Sécurité, Territoire, Population* (Paris: Editions Gallimard, 2004), 125.

성이 구현되는 사적영역에서 개개인들이 통치논리를 따르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내면갈등을 수반한다. 즉 부사렙의 영화에서는 규율화 과정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개인들의 모습을 통해, 도덕체계에 순응하고 질서에 편입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되, 이 질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드러내준다.

2006년 제59회 칸느 영화제는 〈영광의 날들〉에 등장한 4명의 북아프리카 병사와 1명의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pied noir) 중사 역할을 한 배우들에게 공동 남우주연상을 수여했다. 네 명의 북아프리카 병사로는 사이드 역의 자멜 드부즈(Jamel Debouze), 메사우역의 로쉬디 젬(Roschdy Zem), 야시르 역의 사미 나세리(Samy Nacéri), 압델카데르 역의 사미 부아질라(Sami Bouajila)가 등장한다. 이들을 이끌 하사관으로는 베르나 블랑캉(Bernard Blancan)이 마르티네즈 역을 맡았다. 우선 사이드는 한쪽 팔이 없는 알제리의 가난한 목동으로 글을 읽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도보도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으로 충만한 병사로 조국을 구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한다. 사이드는 알제리의 '순진한' 자발적 지원병의 표상이다. 그러나 사이드가 입대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처지였다는 사실이 영화 곳곳에 드러난다. 그의 어머니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이드의 할아버지를 언급하고 "너를 잃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낳다"고 말하면서 참전을 만류해보지만 사이드는 조국을 지키겠다며 트럭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무지하게 보이는 사이드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만난 알제리 출신의 하사 압델카데르와의 대화에 나타난다.

> 압델카데르: 어디에서 왔냐?
> 사이드: 비참함의 밑바닥에서.
> 압델카데르: 군복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나와 같은 거야. 너는 우리와 같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군대... 그건 평등이거든.

정치적 공간인 식민지가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인 '비참함의 밑바닥'에서 왔다고 말하는 사이드의 인식에는 프랑스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제국 안에 두 개의 불평등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군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압델카데르의 언어는 군대 밖의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압델카데르 또한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한 프랑스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군복만을 입고 있을 뿐 결국 '이방인'이었다. 병영 내 일상에서 이들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들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들의 조국인 프랑스인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제국의 중심부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프랑스인들은 프랑스가 그들의 조국임을 끊임없이 주입시킨다. 특히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군가인 '아프리카인들의 노래'는 프랑스가 조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 아프리카인들의 노래(Le Chant des Africains)
> (1절)
> 우리는 아프리카의 밑바닥에 있었다.
> 아름다운 햇살아래 승리자가 전진! 전진! 전진! 이라는 외침을 울리게 할 때
> 우리의 피부색을 소중히 여기는 수호자들
>
> (2절)
> 우리 제국(empire)의 안녕을 위해
> 우리는 모든 탐욕스러운 자들과 싸운다.
>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위해 투쟁할 때
> 배고픔과 죽음은 우리를 웃게 만든다.
> 전진! 전진! 전진!
>
> (후렴)
> 우리는 바로 멀리서 되돌아온 아프리카인들
> 우리는 조국(patrie)을 구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왔다.
> 우리는 모두 부모와 안식처와 가정을 떠나왔고
> 우리는 꺾이지 않을 열정을 심장에 담았다.
> 우리는 우리의 프랑스 전체(notre France entière)의 아름다운 깃발을

높게, 자랑스럽게 들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깃발을 건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맞설 것이다.
북을 울려라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멀리서 죽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프리카인들이다.

이 노래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병대가의 곡에 맞추어 부르던 모로코 사단의 노래에 1940년 펠릭스 브와이에(Félix Boyer) 대위가 새로운 곡을 붙여준 것이다. 이 노래 가사는 식민지의 역할을 조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조국을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은 프랑스가 조국이라고 주입하는 장교들 앞에서 압델카데르가 말하듯 군대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었을까? 적어도 영화속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병사들은 군대에서 공동의 적인 독일을 위해 싸우는 한 그들은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조윤경이 "그것은 드골이 피식민지들의 참전을 독려하며 내세운 명분이기도 했다"[11]라고 강조하듯 사이드는 드골의 말을 빌려서 프랑스를 위해 참전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 하곤 한다. 바로 이 명분이 마그렙 용병스스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위해 스스로 규율화 시키도록 만드는 장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영화속에 등장하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 출신의 병사들이 이미 그들이 살던 곳과 '조국' 프랑스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 중사인 마르티네즈에게 의지하면서 시골의 목동에서 병사로 거듭난 사이드는 프로방스에 상륙한 직후 흙냄새를 맡아 보면서 자신이 살던 곳의 흙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는 한편 프랑스 여성 앞에서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으면서 "나는 한 나라를 해방 시켰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비록 이전에 한 번도 본적이 없지만... 여기는 내 나라야"라고 비장하게 말한다. 그리고 "인샬라(Inch'Allah) 우리가 승리할거야"라

11)조윤경, 위의 글, 677.

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다. “단지 너의 나라만이 너를 들뜨게 하니?” 라고 되묻는 이 여성의 반응은 –비록 냉소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프랑스가 조국임을 세뇌해야만 하는 사이드의 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프랑스는 ‘너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돈을 벌어 결혼을 하기 위해 입대를 결정한 야시르는 함께 참전한 동생 라르비와 함께 성당에 들어간다. 헌금함에서 동전을 훔치는 라르비를 향해 야시르는 “그들의 신은 많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의 행동을 제지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다. 그러나 동생은 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생 라르비는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가 자신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물이었다. 그것은 프랑스 군인들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는 어릴 적 프랑스군에게 학살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며 형에게 묻는다. 학살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지?” 야시르의 한마디 대답은 “평화회복(pacification)”이었다.

메사우는 프로방스에 상륙한 프랑스군을 환영하던 프랑스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여성과 단둘이 방에 있던 메사우는 인기척 소리에 놀란다. 이 여성은 “독일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라고 메사우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메사우가 놀란 이유는 독일군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제리 남자들이] 프랑스 여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 바로 알제리 식민지 남성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신분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후 메사우는 그녀와 결혼해 프랑스에 정착할 꿈을 꾸며 지낸다. 그러나 그녀가 보내는 편지는 메사우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메사우가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두 검열을 받아 파기되고 만다. 결국 휴가를 떠나는 프랑스인들에게 불만을 품은 메사우는 휴가증 없이 그녀를 만나러 가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임무 수행을 위해 석방된다.

사이드가 막연하게 프랑스는 자신의 조국이라고 믿으며 프랑스군 소속의 병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반해 압델카데르는 프랑스 병사로서 프랑스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참전을 통해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승리 후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서 흑인병사에게 토마토 급식을 하지 않자 압델카데르는 지휘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같은 깃발아래 같은 땅에서 같은 적을 상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토마토 역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독일군의 총알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압델카데르의 항의로 모두 공평하게 급식을 받았지만, 결국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11월 보쥬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보급 임무수행 중 소대장과 자신을 제치고 중사로 승진한 프랑스인 르후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대원이 지뢰를 밟아 사망하고, 상사로 승진한 마르티네즈가 심한 부상을 당하자 압델카데르는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된다. 싸울 수 있는 병사는 압델카데르, 메사우, 야시르,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사이드 뿐 이었다. 미군을 도와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압델카데르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무강행을 결정한다. 압델카데르는 말한다: “우리는 알자스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랑스인이 될 거야. 우리가 미군을 도와 전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언하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생존자들은 임무수행을 위해 전진하고 결국 독일군과의 교전 끝에 압델카데르만이 살아남게 된다. 위기의 순간 프랑스군의 총공세로 압델카데르는 살아남지만 프랑스군은 홀로 살아남아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킨 그의 공로를 외면한다. 부대원 전원이 전사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뿐 그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홀로 남은 그는 길에서 행군중인 다른 소대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입되었고 허탈하게 걸어가는 그를 몇몇 마을의 노인들이 치하할 뿐이었다. 주인공들의 마지막 전투는 이렇게 잊히고 알자스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랑스인’이 되기를 원했던 압델카데르의 꿈은 산산히 깨지고 만다.

마르티네즈는 유럽계 북아프리카 정착민의 후손으로 병사들에게 규율을 강요하면서 차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식민지 출신 병사들과 갈등한다. 피에 느와(pied noir)인 그는 프랑스인 백인과 식민지 병사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특히 아프리카 병사들은 마르티네즈를 통해서만 그들의 애국심을 프랑스인에게 확인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마르티네즈는 식민지 병사들이 단지 군인으로만 인식한다. 이것은 프랑스인들과

마르티네즈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백인 병사들은 식민지 병사들을 비하하는 용어인 깜둥이(bougnoul)로 부르고, 지휘관들은 '원주민'이나 '이슬람교도'라고 식민지 출신 병사들을 비하하지만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상관에게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마르티네즈에게 그들은 프랑스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대원들(les hommes)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즈는 북아프리카 병사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는 알제리 출신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면서 자신과 식민지 병사들을 차별화 한다. 그리고 늘 사이드의 아버지 같았던 그는 사이드가 이 사실을 알자 관계를 끊어버린다. 사이드는 자신들과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마르티네즈가 그 사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혐오하지만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부상당한 마르티네즈를 돕다가 전사하고 만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인들과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누구도 프랑스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영화속의 주인공들은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드는 마르티네즈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면서, 메사우는 프랑스 여성과 결혼을 통해, 압델카데르는 임무수행의 공적을 통해, 야시르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마르티네즈는 알제리 출신 어머니를 숨기는 것을 통해 프랑스인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들은 모두 드골이 피식민지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명분의 포로가 되면서, 군사적 품행과 성과를 통해 프랑스인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규율적 개인의 코드(codes de l'individualité disciplinaire)을 만들었다.[12] 이것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조국을 위해 싸우는 병사로 규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전장에서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이들은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한다.

12)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Editions Galimard, 1975), 222.

IV. 맺음말

영화는 2002년 국가자문위원회(Conseil d'Etat)[13]가 1959년 알제리 독립으로 지급이 중단된 연금을 식민지 출신의 참전용사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 조치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끝난다.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게 부분적인 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1959년 12월 26일 공식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 된 이후 국가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연급 지급이 재개되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물가를 기준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의 적게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2006년 9월 25일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은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 대한 연금 재평가를 발표하고 약 8만 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23개국의 식민지 출신의 제대군인들이 점차 프랑스인들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것은 봄에 칸느 영화제에 소개되었던 부사렙의 영화가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하기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자크 시락(Jacques Chirac) 대통령과 정부는 "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연금의 평등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보르도의 행정재판소에서 1996년 2월 유로-지중해 협정에 근거해 6명의 모로코 출신의 참전용사들에게 연금 지급을 결정한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 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 또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참전용사는 연금 수혜자격이 생겼지만 여전히 세네갈 출신들은 제외되었다. 뷰샤럽의 〈영광의 날들〉 은 식민지 출신 참전 용사들의 기억을 다시 프랑스 사회에 떠 올리며 그 정치적 역할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격는 정체성 갈등은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식민지 출신의 이민자들과 그 2세대들은 사회에 포함되었지만 온갖 차별로 배제된 삶을 살고 있다. 결국 현재 방리유의 모습은 〈영광의 날들〉 의 주인공들이 겪은 전쟁터와 같은 정체

13) Conseil d'Etat는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한 자문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재판을 맡는 기구이다. 최고행정재판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기구의 본래의 임무는 자문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가자문위원회로 번역했다.

성 투쟁의 공간이 아닐까?

창원대학교 jajusdk@naver.com